Open Doors

2020. 06. Vol.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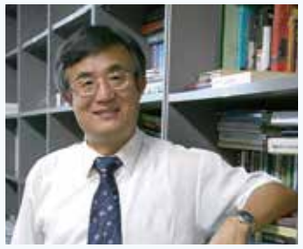
박해와 선교현장

방글라데시 *Bangladesh*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Hope4ME 캠페인 중간보고

카카오톡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전염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교회의 선교사역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이사장)

1월 중순부터 중국의 무한 시에서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주변국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확산이 되었다. 약 4백 7십 3만 5천 명의 환자들이 발생했고, 사망자들도 3십 1만 7천여 명에 이른다. 각 나라들은 벌써 3-4개월 째 전염병과 씨름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거의 7퍼센트에 이르는 치사율에 공포감을 느끼면서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의학적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직도 근본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과 예방, 사망률을 낮추려는 의학적 치료에 각 나라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회는 전염병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 공적 예배 모임이나 각종 신앙모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였으며 각국 정부의 지침에 적극 동참하였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이러한 전염병이 만연하는 비상상황에서 각 선교현장을 점검하였다. 신앙 때문에 차별당하고, 핍박 받는 교인들이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취약하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걸프 및 중동 지역의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들은 전염병의 주요 요인을 서방 세계의 도덕적 타락과 기독교인들의 배교로 인한 알라 신의 진노와 심판으로 해석하며 이를 아프리카 및 다른 이슬람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근본주의 이슬람 테러세력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어떠한가?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전염병을 차단한다고 국경을 봉쇄하며 북한 전역의 통행을 거의 마비시켰다. 그 동안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로 북한 경제는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물건은 유통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므로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함으로 수입이 없게 되고, 매일 같이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북한 전역에 굶주림이 만연하고 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조금이라도 지속이 되면 1990년도 중반부터 2000년도 초까지 일어난 소위 제 일차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런 비상시국에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나타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에 포로 되어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질병과 사망이 찾아온 곳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교회역사는 전염병을 단순히 하나님의 징벌로 보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으로 일치단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염병을 근절하는 일에 천국의 소망과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앞장을 섰었다는 사실을 증거 한다. 절망에 빠진 불신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다.

2세기 중엽에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 교회감독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3세기 중엽에 카르타고의 교회감독인 키프리안의 증언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제국은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세 말 중앙아시아로부터 비단길을 따라 유럽 대륙으로 들어온 페스트에 유럽 전 인구의 거의 30퍼센트가 사망하게 되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13세기 초에 시작이 된 프란시스코 탁발승 수도사 도시빈민 선교사들이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의 신앙정신을 따라서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들이 감염이 되어서 거의 10만 여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후 페스트가 진정이 되고, 이들 프란시스코 탁발승 수도사들은 전 유럽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계선교에 매진하는 선교부흥이 일어났다. 개신교회의 근대선교역사는 의료선교와 빈민선교가 서로 병행하고 있고, 어려운 서민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선교 프로그램이 함께 수반되는 가운데 개신교회를 각 선교지역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현재의 코로나 전염병 상황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주님 앞에서 깊은 회개의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앞장서서 전염병을 퇴치하는 일에 주님이 주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핍박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여 저들을 위로하며 굳세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한다. 또한 북한의 고난 받는 교인들을 위해 더욱 비상기도를 드려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불신자의 존경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CONTENTS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24)
06 박해와 선교 현장
방글라데시 Bangladesh
12 코로나(COVID19) 봉쇄 중 동남아 사역
14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후원요청
16 'HOPE4ME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중간보고
20 현장스토리 1 - "마티" 이야기
21 현장스토리 2 - "달리야" 이야기
23 알립니다

OpenDoors 2020년 06월호 | 통권 218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24)

드보라

이번 여행을 함께 안내해 주었던 조선족 사역자 분이 우리에게 북한 엄마를 두었지만 지금은 엄마가 없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겠냐고 했다. 엄마를 잃은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내가 북송 당했을 때 함께 갇혔던, 북송된 여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새 자기도 모르게 중국에 두고 온 아이 이름을 꿈에서 부르다가 깨던 그 여인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중 몇몇은 죽어서 나가던 그 떠올리기 싫었던 참혹한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간 북한의 보위부, 집결소, 또 교화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을까...

그렇게 한 아이를 만났다. 외진 산골에 아이가 사는 집이 너무나 낡았다.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을 보고 있으니 저 집 무너지면 어찌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가 만난 아이는 나이에 비해 너무 왜소했고 얼굴에 웃음이 없었다. 안아주려고 하니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옆에서 조선족 사역자 분이 "아이가 어미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하며 애써 설명했다. 그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4개월만에 북송당했다고 한다. 참으로 북한 놈들이나 중국 놈들이나 지독하다. 그 아이에게 편안한 할머니로서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머리 숙여서 땅 쳐다볼 뿐이었다.

2010년 북한의 꽃제비 어린이 모습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행기 타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으쓱했던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아 하마터면 내가 아픔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과 어미들을 잊을 뻔 했구나... 내가 이 아이들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겠는가?' 하는 감동이 마음을 울렸다. 언니와 함께 교회에 가서 만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언니는 "어찌 그 아이들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며 울부짖었고 나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잊었습니다 용서하여주소서"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한국 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언니와 함께 계속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들을 소개시켜주신 사역자께서 한참 뜸을 드리다가 우리에게 어렵게 어느 교회나 단체 있으면 이 아이들 조금 후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이들이 시골에서 학교도 못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다니려면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버스 차비 낼 여력조차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고 부르짖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울리는 감동이 있었다.

"왜 네가 이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하느냐. 이 아이들이 받는 연단은 잠깐이지만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아느냐? 이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다. 육안에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복음의 다리이다. 비록 엄마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랑을 너희가 전해주어라."

깜짝 놀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감동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언니한테 이런 감동받았다 했더니 그 언니도 비슷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다.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먼저 베풀고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한달의 10만원이라도 언니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언니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현장 사역자분과 덜컥 약속을 해버렸다. 그렇지만 현장 사역자분은 오히려 나를 주의를 시켰다. 단기성으로 하면 애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니까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확신인지 3년을 약정을 했다.

나중에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미리 알리지 않고 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언니와 내가 반반씩 5만원씩 사랑의 씨앗을 심자고 했다. 그러자 언니는 "아니 네가 5만원 심는데 내가 어떻게 5만원만 심겠니? 나는 10만원 심겠다." 라고 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지금도 꾸준히 수십여명의 아이를 돕고 있다. 다만 역량이 부족하여 파악한 아이들을 다 돕지 못하고 그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만 돕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까지 결심하자 돈문제가 더욱 현실로 다가왔다. 매 학기 등록금을 구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기도와 금식으로 날짜에 임박해서 채워지는 은혜로 몇 학기를 다녔지만 8학기를 이렇게 다니려고 하니 너무 고단했다. 결국 지원이 끊기고 등록금을 내기 어렵게 되면서 휴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다른 신학교 다니는 탈북자 신학생들과 학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주변 다른 탈북자들은 의외로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신학교들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하나재단 외에 한국장학재단 등 탈북자에게 학비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학비 때문에 고생했던 순간들이 너무 아쉬웠다. 결국 나는 학비 지원이 되는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다.

신의주여성교화소

탈북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는 많고 세상은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과 같다. 정보도 부족하고 아는 사람도 몇 없다. 진작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교회가 탈북자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남한 사회와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이 잘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또 신학교들도 탈북자 출신 사역자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탈북자 출신 사역자를 배출하고 이후 통일을 준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방글라데시
Bangladesh

인구 : 168,066,000 명
주요 종교 : 이슬람교(89.1%), 힌두교(9.2%)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887,000 명(0.5%)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38위, WWL2019- 48위
기독교박해 지수 : 63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교의 탄압,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적 당파성

방글라데시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방글라데시는 거의 1억5천만 무슬림들이 사는, 주로 수니파에 속하는 무슬림들의 나라이다. 세계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WCD)에 의하면, 인구의 89% 이상이 무슬림이다.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박해를 받는데 특히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즉시 압박을 받게 되며 폭력에 직면한다. 인구의 9% 정도가 힌두교인인데 이들도 무슬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종족적으로는 인구의 98%가 벵갈인(벵갈리)이다. 차크마와 같은 소수민족들이 있고, 치타공 고지대에 사는 "고산족"(ex. Garo, Santal)들이 있다. 소수민족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주류사회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당한다. 이러한 크리스천들은 소수종족에다가 소수종교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6년 테러사건 이후 정부의 소탕작전으로 이슬람 테러단체의 즉각적인 위협은 감소했어도 크리스천들은 일어날 수 있는 공격들로 인해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목회자들에 대한 살해위협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강제결혼, 강간, 공공자원 배분에서의 차별, 크리스천들에 대한 군중 공격들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이슬람 심화 경향과 전망

방글라데시는 과거에 이슬람 극단주의 과격단체들이 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에 변화가 일고 있다. 2016년 7월,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서, 부유층과 외국인 거주 지역인 굴샨, 아티잔(Artisan) 베이커리 레스토랑에 대한 이슬람의 테러 공격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이슬람 과격단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소탕작전이 2019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9월 방글라데시 보안군은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외로운 늑대 공격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최근 몇년간 일어난 대부분의 테러 공격은 금지된 이슬람 단체인 자마툴 무자히딘 방글라데시(JMB)의 소행이라고 방글라데시 경찰은 발표했다. 많은 경우 알카에다와 IS가 자기들이 주범임을 주장했으나 하시나 정부는 국제 테러단체들의 위협은 감추고 대신 야당과 연계된 자국내의 자생 이슬람 과격단체들을 비난했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7년 학교 교과서를 보수적인 이슬람에 더 맞도록 개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예로, 글자를 처음 배우는 1학년 교과서에서 알파벳 'O'는 무슬림 소녀가 사춘기를 시작할 때 쓰는 스카프인 '오르나 orna'의 첫 자라고 가르친다. 또 6학년 교과서는 이웃 나라인 인도 북부에 대한 리포트를 이집트(무슬림국가)에 대한 리포트로 대체했다. 다른 교과서들도 개정되어 힌두나 크리스천으로 보이는 이름들은 아예 삭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이슬람 폭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지하드에 관한 장들은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5월에 집권당인 아와미(Awami)당은, 방글라데시 전역에 560개의 모스크를 짓는 명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1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근본주의 이슬람 과격단체들과 싸워왔으나, 2018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하시나 수상은 보수적인 이슬람 단체들에게 구애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연설에서 하시나 수상은, 방글라데시의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지적하며, '이슬람 또는 선지자 모하메드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슬람 과격무장단체는 방글라데시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하시나 수상)가 이끄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앞으로 이 줄타기와 같은 대처를 어떻게 유지해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부가 이슬람 과격단체들을 제어하는 제한적인 성과를 냈지만,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민 일부는 이를 지지하지 않고, 또한 국제 과격파 무슬림들이 유입되어 토착 단체들과 연계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집권당이 계속해서 이슬람 무장단체들을 반대당인 야당과 연계된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표를 얻기 위해 이슬람 과격단체들에게도 구애를 하는 이중적인 노선을 걷는다면 이슬람의 과격화를 막는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계속 증가하는 또 하나의 위험은 미얀마에서 온 주로 무슬림인 난민들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을 선거가 끝난 2019년에 미얀마로 돌려보내기를 희망했지만, 시작도 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이다. 돌아가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난민 사이에서 이슬람 과격화가 진행되는 위험이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곧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이나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이웃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박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작은 가정교회나 비밀스러운 소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갖는다. 다수의 무슬림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오순절 교회를 포함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최근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정통 교회에 대한 공격과 살해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 **사적인 영역 :** 가족 사이에서도 기독교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비밀리에 숨긴 채 신앙생활하기 원한다. 글로 표현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2018년 10월 채택된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종교적(이슬람) 비방, 종교적(이슬람) 정서를 해치는 것, 웹사이트나 어떤 온라인/SNS형태로 개인이나 단체에 반하는(이슬람에 반하는) 선동 등은 14년 감옥형까지 받을 수 있다. 개종한 이들이나 로힝야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이미지나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공격의 대상이 된다. 한 목사는 소지품에서 기독교 이미지가 발견되어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 **가정 영역 :** 크리스천 가정 자녀들은 반기독교 교육에 출석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개종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을 체험하며, 이슬람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강요된다.

• **지역공동체 영역 :** 크리스천들은, 특히 개종한 경우, 과격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모니터를 당한다. 무슬림 지도자들은 반기독교 데모대를 조직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크거나 전도를 한다고 보일때는 경찰을 불러 크리스천 리더들을 조사한다. 개종을 하면, 경찰과 민간순찰대로부터 심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 한 경우, 지역 무슬림들이 45명의 MBB(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를 모스크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무슬림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했다. 또한 종교지도자들은 개종에 대한 벌금으로 가족당 100다카를 부과했다. 크리스천들은 무슬림 보다 취업하기 어렵다. 취업된다 해도 승진이 어렵다. 공무원이 되기도 어렵다.

• **국가 영역 :** 종교 관련 이유로 여행하는 것이 어렵다. 치타공 고지대로 가려면 군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여행목적을 말해야 하고 종교적인 이유면 여행이 허가되지 않는다. 2017년 11월 하시나 수상은 NGO활동을 모니터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작은 NGO들이 문을 닫았고 남은 단체들도 더 어려워졌다. 모든 NGO와 종교기관들은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종교국에 등록하고 신고해야한다. 크리스천에게 해를 입혀도 거의 법적 처벌이 면제된다.

• **교회 영역 :** 설교와 교육, 발행물들이 모니터를 당한다. 정부 당국 보다도 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과 지역공동체로부터 감시를 당한다. 감시의 강도는 사역의 적극성에 따라 다르다. 교회가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면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성도에게 세례식을 하지 않고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도록 권한다.

교회 성도들의 명단이 민간순찰대와 당국에 보고되야 한다. 특히 전도를 의심받는 치타공 힐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다. 목사와 교회 리더들과 그 가족들은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

"어느 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제 형제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기독교를 포기하거나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일 거라고 했죠. 저는 마을을 떠나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공개적으로 제 믿음을 선포하고 기독교인임을 선언해요." – 하비불라

WWL2020 방글라데시 박해보고

(2018년11월1일~2019년10월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0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114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27명
공격받은 교회 수	14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 수	58건

이 기간 중에 살해된 크리스천은 없으나 살해의 위협은 여러 차례 있었다. 14개 교회 또는 교회 모임이 공격을 받았다. 하나님의성회 소속 교회가 방화로 불탔고, 로힝야 난민 캠프내의 교회가 파괴되었으며, 치타공 고지대에 있는 교회들이 파괴를 당했다.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법 개종"이라는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금을 당했다.

방글라데시 개신교회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포르투갈 무역상들과 로만 카톨릭 선교사들이 벵골만에 있는 현재 방글라데시의 도시인 치타공 해안에 도착함으로써 기독교 전파가 시작되었고 최초의 교회들이 지어졌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술탄이 지배하는 영토인 "벵갈 술탄영지"로 불렸었다. 그 후 1793년,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당시 인도 영토인 이 지역, 서부 벵골에 들어와 개신교선교의 새 시대를 열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학교제도는 윌리엄 캐리의 사역 덕분이다. 캐리의 뒤를 이어 19세기부터 영국 선교사협회, 영국 장로교세계선교회, 호주 침례교선교회, 뉴질랜드 침례교선교회, 미국 하나님의교회, 하나님의성회 소속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이후로는 더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방글라데시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150명(0.0%)
카톨릭	417,000명(47.0%)
개신교 기성교단	339,000명(38.2%)
독립교단	300,000명(33.8%)
무소속	3,000명(0.3%)
이중 소속	-172,000명(-19.4%)
합계	887,150명(100%)

방글라데시를 위한 기도와 후원

-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정부가 성공적으로 통제하기를 기도해주시고, 사회 전반이 이슬람으로 보수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슬람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으로 이슬람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 방글라데시 성도들이 믿음 안에 강건하도록, 특히 비밀리에 믿는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박해를 견뎌내고 신앙을 굽히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 믿음을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적, 감정적, 영적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오픈도어가 현지 파트너들과 진행하는 아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세요.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박해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성경적인 여러 훈련사역들 : 제자훈련, 박해대비 훈련, 어린이/청소년/청년 캠프, 여성컨퍼런스, 교회 지도자훈련, MBB/HBB수련회(무슬림과 힌두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위한 수련회)… 이 훈련들을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이 박해에 성경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문서사역들: 현지어/부족어 성경 번역과 배포, 기타 전도와 신앙생활을 위한정기간행물 제작과 배포…준비와 제작, 전달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사회경제적지원(SED) 사역들: 성인글자교실, 시골목회자/성도 생활 지원, 시골의사/의료 지원, 직업훈련/수입창출, 코로나19 긴급구호를 비롯한 각종 재난긴급구호…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필립의 부족은 고립된 의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필립은 자기 공동체의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시기를 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픈도어 선교회로부터 의료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불교신자인 이웃들에게 몸을 위한 약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약까지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 문을 열어 주시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방글라데시 오픈도어 사역

MBB(무슬림배경)와 HBB(힌두교배경) 형제 수련회

MBB수련회

로힝야난민 세례

목회자 자전거 지원

우물펌프 지원

어린이캠프

청년수련회

여성컨퍼런스

문서사역

성경세미나

제자훈련

여성컨퍼런스 부족여성지도자들

시골의료지원

청년참가자들

홍수피해 긴급구호

코로나(COVID19) 봉쇄 중의 동남아 박해지역 오픈도어 사역

국가들의 봉쇄와 이동제한으로 인해 오픈도어와 현지 파트너들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구호품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의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공적지원에서 차별을 당합니다. 이들은 동료 크리스천들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보건 인력 중에서도 크리스천에게는 보호 위생 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픈도어는 이들에게 필수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세미나, 컨퍼런스, 캠프, 현장방문 등, 많은 성도들이 직접 모이는 사역들은 중지되었지만, 오픈도어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점점 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같이 지역적으로 봉쇄조치가 풀리는 곳에서는 실제적인 방문 사역도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오픈도어는, 구호품 지원과 온라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역의 첫번째 우선순위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때로는 놀라우리만치 고립됩니다. 그런데 이런 봉쇄 조치는 그들이 혼자이며 잊혀졌다는 느낌을 더욱 증가시키게 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인터넷, 전화, 개인방문-을 동원하여 우리는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러한 위기에, 전세계 교회의 한 가족이 그들 곁에 있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어떤 물품들이 전달되고 있나?

인도와 네팔에서 배포한 긴급구호 물품에는, 밀가루, 쌀, 콩, 차, 식용유, 카레가루, 설탕, 소금, 성냥, 말린 고추, 간식, 비누, 마스크, 소독제가 포함됩니다. 가정마다 3~5주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량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곧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와 남부 필리핀에서 배포한 식량으로는, 쌀, 밀가루, 인스턴트 국수, 달(녹두와 비슷한 작은콩), 감자, 식용유, 소금, 설탕, 간장, 차, 식품 쿠폰입니다. 각 가정은 2~4주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긴급구호 수혜자 수는?

***5월초까지 총 20,000명 지원.**
추가로 50,000명 지원 계획.

지역	수혜 가정 수(3월말)
인도	1,000가정, 수천 가정 추가 진행 중
네팔	200가정, 수백 가정 추가 진행 중
방글라데시	850가정, 2000 가정 추가 진행 중
말레이시아	30가정
남부필리핀	172가정
인도네시아	150가정
스리랑카	245가정 – 200가정 추가 진행 중

방글라데시 오픈도어는 3월 말까지 850가정을 지원하고 2000가정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봉쇄상황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100만 명의 방글라데시 옷공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서구 국가들이 의류주문을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특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정부 구호품 배급에서 차별을 당합니다. "정부는 우리(크리스천들)가 외국인들로부터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구호품을 주지 않아요."라고 시골 출신의 크리스천인 사이먼 차크마는 말했습니다.

오픈도어의 한 현지 파트너는 "우리는 매일 매일, 방글라데시 곳곳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전화들입니다"라고 전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방글라데시와 같이 어렵지는 않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성도인 사라는 남편과 함께 여러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었는데 코로나 위기로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한살배기 딸을 둔 사라 부부는 저축했던 돈으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올 몇 달 간의 재정을 위해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생필품이 필요한지를 묻는 오픈도어 사역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필요해요!"라고 대답한 사라는 너무도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남부 필리핀에서 오픈도어는 172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 남부필리핀 성도들도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출신인 한 교회 리더는, "우리는 옥수수 농사가 걱정이예요, 곧 수확을 해야하는데, 다 봉쇄가 되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니 많이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오픈도어는 그와 그 가족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에 식료품과 생필품들을 살 1,000페소를 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떤 사역을 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알릴 수 없으나 오픈도어 팀과 현지 파트너들은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하여 성도들 그룹에 제자양육 및 기타 훈련들을 제공함
-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보를 제공함
- 무슬림에서 개종한 MBB크리스천들과, 지하교회 비밀신자들을 모아 용기를 주고 성경공부를 함.

수혜자들의 이야기

• **시골 주부 사이샤** :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에 살고 나만 이 마을에 혼자 살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지요,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지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지요. 광야길에 부족한 게 없게 하셨지요. 낮에 해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셨지요…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형제님(오픈도어 현지 파트너)을 통해 다 공급해 주셨어요. 후원자님들, 선교회, 이 모든 물품을 사오느라 수고하신 형제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지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선교회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 **리샨 목사:**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교회 모임도 없고, 십일조도 없지요…, 우리 가족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다니 오픈도어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6식구의 가장, 사딜 :** "이 도전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쇄로 인해 우리는 일이 없고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요청

오픈도어 코로나(COVID-19) 긴급 구호

오픈도어는 코로나(COVID19) 봉쇄로 생활이 어려워진 박해지역 성도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 위생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초까지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아시아 박해지역에서 총 20,000명의 크리스천들을 지원하고 추가로 50,000명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호물품 패키지는 약 25달러 상당이고 이는 5명 한가족의 1개월 생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후원계좌 :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Hope4ME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4년

'Hope for the Middle East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은 중동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해 오픈도어가 7년 계획으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6년에 시작되어 중동에 있는 교회들이 소망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교회가 회복되어 성도들이 그 지역공동체와 나라에 희망의 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4년째, 캠페인 중반을 넘어온 시점에서 캠페인 매니저, 라미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Q 2016년에 이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013년부터 오픈도어는 옹호사역으로 특히 시리아에 집중해 시리아 살리기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ISIS가 발호하면서 캠페인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슬람 극단주의의 증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점점 더 중동 전역에 또 중동 너머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중동의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이 대거 그 지역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긴급한 질문이 남겨졌습니다.: 중동 기독교공동체에 미래가 있다는 소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다양한 크리스천 그룹들을 조사하고 동료와 파트너들을 모아서 중동의 기독교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로 중동 크리스천들을 지원하기 위한 7년 통합 사역 캠페인이 탄생했어요.

Q 캠페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비전은 크리스천 공동체 전체를 강화해서 중동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중동 교회에 희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지역공동체와 나라와 그 지역에 희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파괴된 집을 다시 지어주고, 교회를 희망의 센터로 만들어서 중동의 교회들이 희망의 횃불로 회복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Q 2017년에 IS가 거의 격퇴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시리아와 이라크 크리스천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요?

IS점령이 끝나고 많은 물리적인 피해는 보수되었다고 하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IS가 군사적으로 패한 것이지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은 지금도 사람들 속에 살아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무슬림 주류 사회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라크의 한 교회 지도자가 자기 사회가 크리스천들을 '토해 내는 것' 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그 지역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라크에서, 크리스천들은 2003년에 15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02,000명이예요.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87%가 줄었습니다. 시리아 내전 이전에 시리아에는 220만 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744,000명만 남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떠났어요. 두 국가 모두 경제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어 그곳 크리스천들의 고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시리아 현장 사역자 말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생활이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워 크리스천들은 기초적인 필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Q 캠페인 4년차인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이라크와 시리아 교회의 목소리가 세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들리게 되었지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정치가들과 함께 그들을 만난 미팅들로 인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이 변화된 정책들은 이라크에서 기독교의 존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벌써 현장상황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근이 말하기를, 펜스 부통령이, IS의 피해를 입은 이라크 종교 소수자(주로 기독교)들을 위한 지원을 반드시 하기로 결정한 데는 우리 대표단과의 미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원 정책도 변화해서 신앙(주로 기독교)에 기초한 현지 기관 단체들, 교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 국제적 후원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계지원, 주거지 재건축, 수입창출 지원 등의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수년간의 추방과 파괴 끝에 사람들이 희망을 회복하도록 교회가 돕는 역할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 교회가 박해와 불의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사역도 해왔어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핵심적인 옹호사역 기술을 가르쳤고 지역교회들이 박해사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3명의 크리스천 인물들과 그들이 과학, 문학, 예술에 기여한 것을 조명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랍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것에 주목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웃들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과 요르단 같은 국가에서 790만 명 이상이 이 캠페인을 접했고, 그 중 250만 명 이상이 메시지를 교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학교에서 이 사람에 대해 배우지 않는지 의아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걸 왜 배우지 않나요."

우리는 또 성공적으로 전세계 크리스천들과 시리아 이라크 교회를 연결시켰습니다. 최근에 이곳 크리스천 공동체에 우리 후원자들은 생명선이 되어 왔어요. 우리 후원자들의 기도, 격려, 재정후원은 이 지역 크리스천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공동체를 재건하고 정서적으로도 회복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었습니다.

Q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캠페인의 성취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 캠페인의 강점과 성공 중의 하나는 그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서 크리스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세계교회가 이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되었으며, 또 국제 정치가들의 정책지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 모든 서로 다른 그룹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시리아와 이라크의 교회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캠페인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식품과 의료 지원은 시리아에서는 계속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라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다시 생필품 지원이 시작된 겁니다. 구호물품들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규정들과 사회적 격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시리아에서 가정재활 사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려졌지만요. 대부분의 대면 활동들은 취소해야 했어요. 대신 일부 활동들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일부는 연기되었습니다. 현지 현장사역자들은 전화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역대상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과 6월 사이에 예정되었던 많은 교회지도자 훈련들과 법률지원 옹호사역 훈련들이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새로운 리서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또한 같은 이유로 연기해야 했어요.

캠페인의 남은 3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두번째 국면 중간 쯤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희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성취한 이 일들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강한 존재감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두번째 국면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크리스천들의 희망 역량을 회복하라
2. 크리스천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지역적, 세계적 지원을 쌓으라
3. 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가능케 할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주라

희망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들은 무엇인가요 ?

계속해서 교회들이 희망의 센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센터들은 여러가지 '희망의 선물' 프로젝트들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현지 교회들입니다. 여성, 청년, 부부 사역 프로젝트, 제자훈련, 리더십 훈련 프로젝트, 트라우마 상담치료, 목양 사역 프로젝트, 크리스천 인권옹호 사역, 성도들의 생계지원과 수입창출, 지역공동체 재건과 섬김 프로젝트들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현지교회 희망의 센터들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들은 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들은 여러 교회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관단체들과 협력하여 한 센터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동지역 희망의 센터는 성도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희망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그곳의 많은 성도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고 자기 나라를 떠날 방법만 찾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교회가, 아주 사라지지는 않는다 해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전체 교회 중 65%(약 125개)가 희망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교회 중 20%(약 110개)가 희망의 센터 또는 더 큰 센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지 파트너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센터들이 더욱 성장하도록 돕고, 더 많은 센터들이 만들어지도록 새로운 교회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지역적, 세계적 지원을 어떻게 쌓을 계획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운동을 할 것입니다. 특별행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기도요청을 통해서 기도후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 페이스북을 이용할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 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2022년까지 중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100,000명의 크리스천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역사적으로 기독교공동체와 크리스천 개인들이 이 중동 지역에 기여한 위대한 업적들을 강조함으로써 중동사회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을 이 중동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로 보여지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크리스천들의 가치가 중동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레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국제기금들이, 교회와 같이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가 박해와 차별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제도적으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캠페인을 해온 지난 몇 년 간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두가지 주요 도전이 있습니다: (i)지금까지 캠페인의 여러 다른 성취들을 견고하게 하면서 동시에 최종 국면을 향해 밀고 나가서 가능한 최대한의 영향력을 보장하는 것 (ii)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이룬 진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이 노력들을 통해, 이 지역 교회들이 개발사역과 옹호사역 역량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룬 토대 위에서 지역교회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캠페인을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후원해주시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해주신 분들, 또한 이곳의 박해상황을 알리고 크리스천들을 옹호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는 여러분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이 노력을 계속 해나갈 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곳에서 미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아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이미 전달된 도움과 희망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라크 카라코쉬 시 재건위원장, 파더 죠지의 감사 인사

"2014년 8월 6일, ISIS가 이 도시에 들어왔고 그 점령 기간 동안, 그들은 많은 집들을 파괴했어요. ISIS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 대해 많은 증오심을 갖고 있었지요. 그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을 파괴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없었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이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증오심보다 더 강합니다."

"2017년 5월에 우리는 카라코쉬 시의 재건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집들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 피해가 적은 C타입부터 보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불에 탄 B타입 집들을 고치고, 이제 완전히 파괴된 A타입 집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그 소망을 후원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끔찍한 상황을 당했어요 그 후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후원해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도시에서만, 피해가 적은 집 558채, 불탄 집 256채를 재건했어요. 그 덕분에 860가정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이 도시로 다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라크 크리스천 가정들에게 약 2000채의 집을 수리해줄 수 있었습니다. 주택 다음으로 교회와 학교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이라크 가정집 재건 수혜자, “마티” 이야기

집은 아직 석회반죽으로 덮여 있고, 침대 2개와 TV외에는 아무 가구도 없다. 그러나 마티(55세)와 아내 나지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며칠 후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5년 전에 피난 가느라 떠났던 집이다. 그러나 아픔도 있다: 그때 이후로 6명의 자녀 중 3명이 조국 이라크를 떠났다.

“우리는 5년 전과 똑같이 보이도록 집을 꾸밀 겁니다.” 마티가 벽을 훑어보며 말했다. “아이들이 우리한테 집을 전처럼 똑같이 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애들 모두 그걸 원해요, 더 이상 우리랑 같이 살지 않는 데도 그래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준 집이었는데 너무나 변해버린 것이다.

마티는 카라코쉬(Qaraqosh)가 (IS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가보고는 이 도시가 예전처럼 다시 살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를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폐허가 되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들은 파괴되거나 불에 타고 거리에는 쓰레기들만 있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버려진 도시였어요.”

그러나 마티는 거리를 걸어 다니는 동안에 천천히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다. “어쩐지 돌아와서 우리 집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전세계 후원자들이 이 지역의 재건을 위해 헌금해 주셨고, 도시 재건을 기획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최근에 마티는 이 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거기서 우리 집을 다시 지어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다시 짓고, 거기서 다시 살 수 있다니요! IS가 우리를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물리적인 도시는 재건되었다, 그러나 마음에 입혀진 상처는 아직 남아있다. 마티가 도시를 떠나던 날 밤 이야기를 꺼내자, 연로하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는 그들(IS)이 내 손녀들을 데려갈까봐 너무나 무서웠어요.” 마티가 안정시키려고 해도 어머니는 계속 흐느꼈다. 마티가 자기 집 옥상 테라스에서 거리를 내려다 본다. 차들이 다니고, 가게가 문을 열고, 교회 종소리가 울린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그러나 마티는 전세계 교회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는다. “그분들이 우리와 우리의 고난을 생각해주신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게 했어요.”

마티와 아내 나지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에서도 모두 건강하고 막 새로 단장한 그 새 집 안에 머물고 있다고 전해왔다. 또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속히 끝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라크 ‘희망의 센터’ 여성모임, “달리아” 이야기

니느웨 평원의 흐린 어느 날, 신선한 바람 사이로, 40,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기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 마을에는 크리스천들과, 야지디 족, 샤바크족, 그리고 무슬림들도 함께 산다. 산 바로 뒤에 있는 수백년 된 수도원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이지역에 크리스천들이 살아왔음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다.

달리아는 남편과 3명의 자녀, 그리고 강아지 치와와와 함께 이 마을에 살고 있다. 달리아의 첫번째 추억들은 할머니의 정원에서 사촌들과 뛰어놀며 대가족이 다같이 식사를 하고 다같이 교회에 가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이제 아픔을 가져온다. 더 이상 그 대가족은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아는 일가친척 중에서 이 마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이들은 모두 박해와 전쟁 때문에 이라크를 떠났다.

달리아는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박해를 알아왔다. 그러나 2006년 모술에서 숙부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숙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크리스천들 중의 한 사람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라크에서 예수를 따라서는 안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크리스천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살해자들은 숙부의 장례식장에서 달리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숙부를 살해한 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오빠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멈추고 돈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2014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모술을 점령하고 근접한 니느웨 평원의 도시와 마을로, 기독교인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갖고서, 진격해 들어왔다. 달리아와 남편은 3 명의 십대 자녀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로 마을을 탈출했다. “너무 불안했던게 기억나요. 우리가 몇 년 걸려 지은 집을 버리고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야 하니, 등에 진 옷가지 일부 외에 가진 것도 없이 말이죠.”

당시의 아픈 기억들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달리아는 신앙 때문에 당한 박해상황에 대해 놀랍게도 담담했다. “성경에 써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건들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예요. 우리가 도망가던 그날 두혹(Duhok)까지 가는 길 내내 울었어요. 하지만 내 신앙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박해는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달리아가 2017년에 다시 돌아온 고향마을은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어린시절의 추억이 서린 아름다운 곳들은 황폐화되고, 집들은 불타고 불탄 벽에는 IS의 슬로건들이 써있었다.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도, 마치 그 집에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이들마저 자기들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끼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라고 달리아는 회상했다.

지난 10년간, 대략 143,000명의 크리스천들이 이라크를 떠났다. 그러나 달리아는 IS 무장세력들에 의해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여기가 그녀의 조국이요 그녀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기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와 재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과, 많은 이웃들의 집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재건되었다.

달리아의 삶이 편안하지만은 않다: "우리는 항상 짐을 싸놓고 있어요. 또 피신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매우 엄격하게 주의를 줘요. 우리 딸은 모술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는 납치와 폭탄테러가 빈번한 곳이니까요. 무섭지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달리아의 답은 단순했다: "교회에 가는 거였지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저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주님께 이끌려갔고 기도가 깊어지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이 내 속사람에게 말씀하셔요…슬플 때, 압박감을 느낄 때, 상처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달리아는 니느웨 평원으로 돌아왔을 때, 무언가 신앙을 강하게 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주위의 다른 크리스천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고, 그녀는 그들을 모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교회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나, 성경에서 소망을 찾는데 이 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의 후원으로 달리아의 계획은 실행될 수 있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여성 제자훈련 모임 세팅이 마련되고 믿는 크리스천 여성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마을 여성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지, 어떻게 그들과 지혜롭게 소통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 훈련받았어요." 라고 달리아는 전했다.

훈련 후에, 달리아와 친구들은 정기적인 여성성경공부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기도모임이기도 하다. 이 모임은 곧 이 마을 여성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것 임이 증명되었다. 여름에 150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이는 마을에 있는 크리스천 여성들 거의 절반이 온 것이다. "나는 성령님이 모임 중에 우리 가운에 일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기뻤어요."라고 달리아는 말한다. "한 자매가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달리아와 여성모임 리더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청년과 같은 타깃 그룹들을 위해 일하는 크리스천들도 훈련시키고 있다. 여성모임이 시작된 후로 이 지역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졌다고 한다.

니느웨 평원의 상황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원으로 교회는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에 다시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게 됐어요. 더 자신감을 얻고 마음도 평화로워요." "우리를 후원해주시는 한분 한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박해 가운데에서도 바로 여기서 전할 수 있어요."라고 달리아는 말한다.

우리가 달리아를 만나고 돌아온 직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라크에도 왔다. 나라 전체가 봉쇄에 들어갔고 교회 건물도 봉쇄되었다. 이 새로운 상황에서, 달리아와 여성 자매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 가정집 거실들이 작은 교회로 바뀌었다. 이라크의 전통적인 크리스천들에게 가정집 거실에서 성경공부모임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은 이 가정 모임에서 성경을 배운다. 달리아와 리더들은 계속해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현지 사역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또 온라인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견뎌 나갈지, 마을 주민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의논한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행히 이라크는 코로나19가 심하게 퍼지지는 않았다. 5월부터 제한 조치들도 점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다. 그러나 달리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달리아는 말한다. : "나는 항상 사도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워요: '내게 능력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라크에 있는 16개의 희망의 센터가 여성사역 그룹을 가지고 있다. 2020년 우리의 비전은 이 16개 그룹을 더 강하게 세우고, 추가로 최소 6개의 희망의 센터에서 여성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속도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이 비전이 변한 것은 아니다.

여성모임 참가자 사르와 (30세)

"나는 모임이란 모임은 거의 다 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좋아요. 모임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줘요. 강의 후에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요. 같이 먹고 요리도 하고 때로는 야외강의를 들어요. 이 모임으로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여성모임 참가자 리디아 (52세)

"나는 이 모임이 세팅 되는 방식이 좋아요. 아주 창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임마다 가고 싶어져요."

여성모임 참가자 사메라 (53세)

"모임 후에 나는 항상, 모임에서 배운 걸 딸들이랑,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나는 이 모임에서 많은 걸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자라났어요"

알립니다.

■ WWL2020 박해지도와 저금통을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박해지도는 어른용과 어린이용 2가지 이며,
크기는 국2절 포스터 및 개인용 A4 사이즈 2가지 입니다.
⇨ 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opendoorkorea@gmail.com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300기도용사"를 신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주간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 010-7548-3171

■ 오픈도어 '후원자 스토리'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오픈도어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odsk@opendoors.or.kr

■ 월간 소식지와 기도월력을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상단메뉴 자료실 〉 발행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번호는 특별 기사와 사진이 많아 뉴스와 업데이트, 후원자스토리는 쉽니다.

▶문의/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dsk@opendoors.or.kr / www.opendoors.or.kr

희망의 선물 2020 캠페인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 비정기후원 ☐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 5일 혹은 ☐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